

[촬영논평]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속된 의지로 완성되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건설을 신속히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뜻깊게 받아들인다.

오늘(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의지를 잊지 않고 전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국가의 지역이 모두 성장하고 번성하여 균형 잡힌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오랫동안 논의해 온 국가적 과제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정부세종청사 건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세종은 이제 더 나아가 행정수도로서 필요한 기능과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갖춰 나가야만 완성될 수 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의 메시지에 지속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의지가 포함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국토균형발전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기반하여 진전할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는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갈 것이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결실을 보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